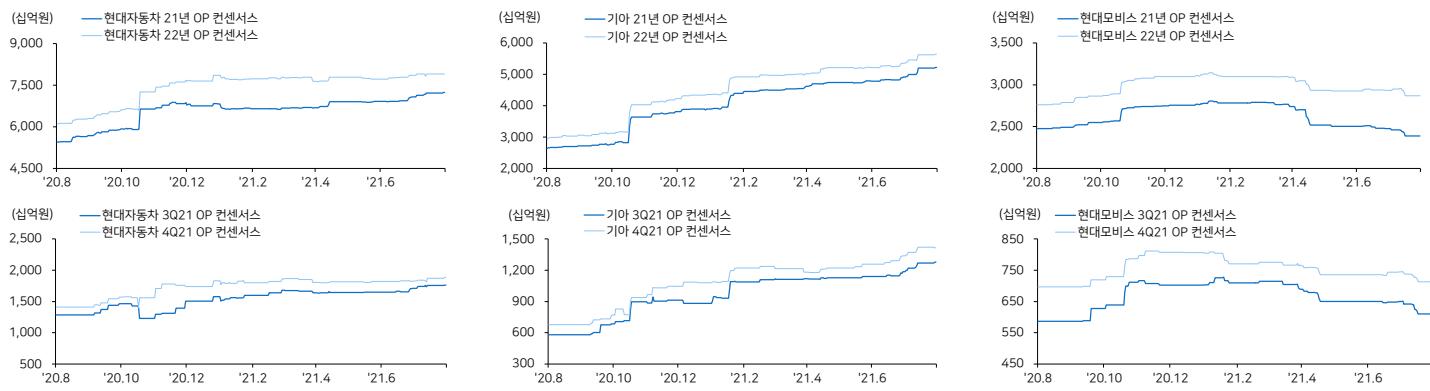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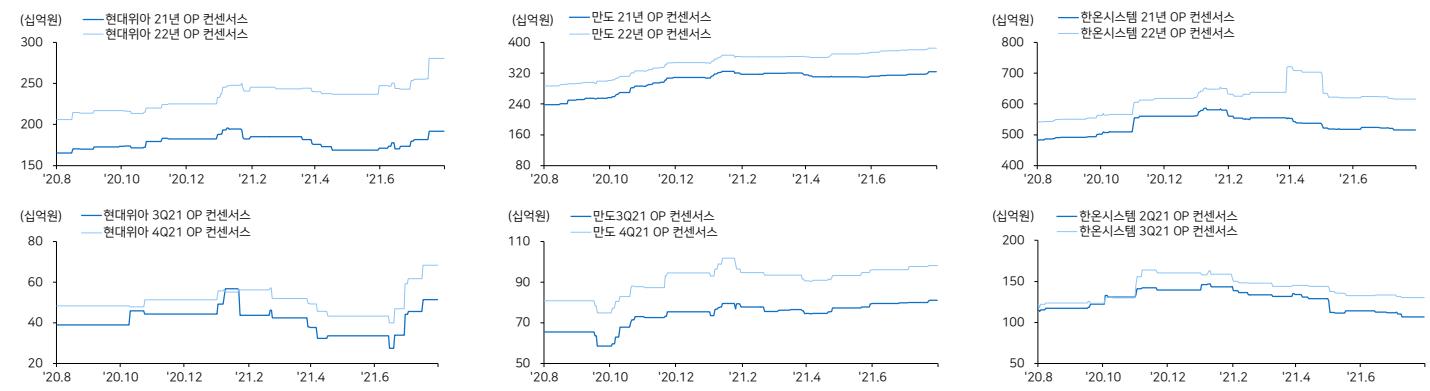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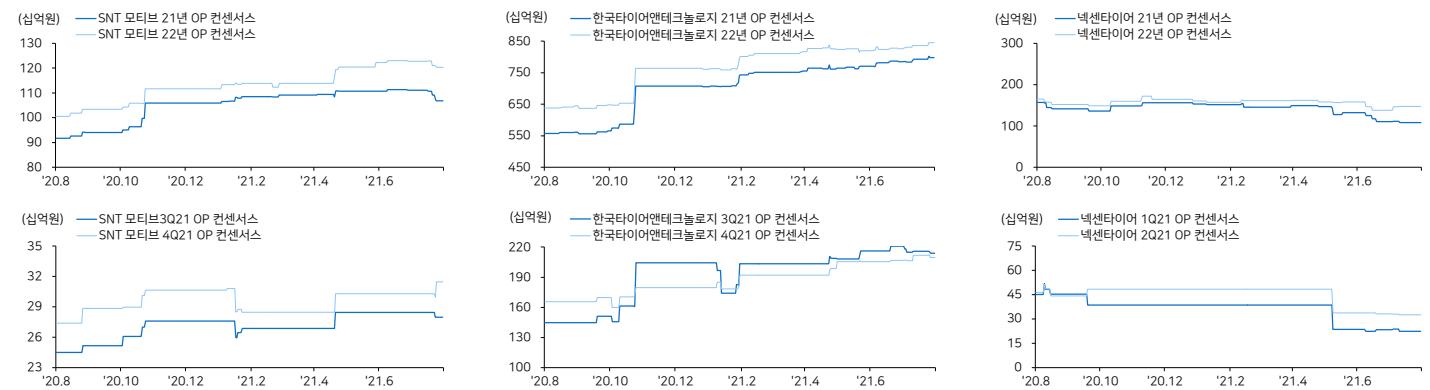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그룹, 내년 'E-GMP 전기차' 강점 만든다 (전자신문)

현대차그룹이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용 전기차의 내년 생산능력 목표를 올해의 두 배에 이르는 30만대로 상향. 미국과 유럽 등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기차 성장세에 대응, 시장 리더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https://bit.ly/37yb7Tu>

인도, EV 수입관세 인하 검토…현대차·테슬라 '미소' (THE GURU)

인도 정부는 4월달러(한화 약 4,600만원)미만 수입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고 4만달러 이상 전기차를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 수입 관세 인하 조치는 인도 전기차 시장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
<https://bit.ly/3s4w9S5>

미 상원, 1조달러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의 지지(찬성 69표대 반대 30표) 속에 1조달러 인프라 법안을 가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경제·국방·설립을 위한 첫 단추가 끊어짐. 선기자 충전소 시설 보급에는 75억달러가 배정됨.
<https://bit.ly/3fTD6bw>

중국 로봇택시 서비스, 미국 보다 빠르다 (로봇신문)

중국 테크기업들이 촉진하고 있는 로봇택시 사업이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진행 중. UBS는 '30년까지 전세계로 로봇택시 시장이 연간 최소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로봇택시 구매량이 전체 신차 판매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https://bit.ly/3xxnXct>

현대차, 인도에 N라인 전격 투입…'120 N라인' 낙점 (THE GURU)

현대차는 9일(현지시간) 인도 시장에 120 N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힘. 인도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고성능 브랜드가 투입될 시기라고 판단. 과거와 달리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고성능 모델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https://bit.ly/2VlszK>

침체된 브라질車 시장, 현대차 나홀로 삼바춤 (디지털타임스)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GM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임. 브라질 시장은 COVID19 여파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지만, 현대차는 연내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https://bit.ly/3cXTyC>

KAMA '커넥티드카, 연평균 36.8% ↑…OTA 허용·관련 규제 완화해야' (뉴스1)

미래 자동차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카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6.8%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 OTA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https://bit.ly/3fRzV3Z>

中 BYD, 테슬라 공급 철 인정…'모델Y 탑재' (THE GURU)

BYD가 테슬라에 내년 2분기부터 리튬인산철(LFP) 기반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납품할 계획이며,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Y 탑재가 유력함. '22년부터 현대자동차, 미국 포드, FAW 등 완성차 제조사에도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급 예정.
<https://bit.ly/37vqJ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